

이 천은 고려 고종때의 장군이었으며 자는 수덕 호는 동양수 본관은 전의 보승별장 순의 아들로 태어나 엄격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기 이룰데 없었으며 용기 또한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을 너무 과시했기 때문에 동네 아이들로부터 눈총을 받았으며 모두들 이 천을 싫어했지만

불평 한 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힘만 셀뿐 아니라 칼을 휘두름에 있어 당해 낼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안타깝게 쳐다보니 눈동자가 있었으니 그는 다름아닌 그와 가장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힘이 세다고 거만스러운 이 천을 바로 일깨워주고 힘은 약하지만 친구란 언젠가는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한 께를 생각해냈습니다.

다음날 친구는 동네 아이들을 그가 모르게 언덕에 모아 놓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찬성을 했으며, 결국 이 천을 불러 내어 같이 놀자고 했습니다. 그는 꽤히 승락하고 같이 놀자고 한 줄다리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승락한 이유는 자기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가 자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천은 자기는 혼자할테니 너희들은 모두 한 편이 되어서 덤벼 보라고 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대로 잘 돌아갔다고 속으로 흡족히 생각했으며 한편 어떻게 될까 초조해 하기도 했습니다. 줄의 한쪽은 이 천이가 당기고 또 다른쪽은 그 마을에서 악골이라고 하는 5명만이 당기게 했습니다. 그가 힘에 세다고는 하지만 다섯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 천은 있는 힘을 다 썼지만 결국 지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이 천은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잠그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알았고 단체의 힘이 어떠한 가를 깨달았습니다. 훗날 어렸을때의 이 일은 그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훌륭한 장군으로 활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256년(고려 고종 43년) 수군 200여명을 거느리고 남도에 나가 몽고병을 방어 하였으며 같은 해 온수현(현재의 아산)에서 몽고병과 싸워 수십명을 죽이고 납치 되었던 우리 백성 백여 명을 구해 내는 전공을 세운 분이 바로 이 천장군입니다.